

고2 문학  
미래엔

1(1)(1) 배를 매며 - 수능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달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1.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 대해 감상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배를 밀며>는 생각지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커 가는 과정을 배를 정박시키는 일에 빗대어 사랑과 인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밧줄이 날아오는 것과 같이 사랑도 예고 없이 찾아 오는 걸 표현한 거로군.
- ②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화자의 행동으로 보아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이 찾아 온 것을 표현한 거로군.
- ③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라는 걸로 보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걸 표현한 거로군.
- ④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사랑의 불가항력성을 표현한 거로군.
- ⑤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를 표현한 거로군.

2.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은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석, <백화(白樺)>

- ①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의도적인 행갈이로 화자의 불안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일상의 경험에서 느낀 화자의 자기반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3.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티)

날러는 엇디 살라 ㅎ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티)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티)

셜은 님 보내읍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티)

- 작자 미상

- ① 이 시와 <보기>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 ② 이 시는 <보기>와 달리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보기>와 달리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보기>는 이 시와 달리 화자가 시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⑤ <보기>는 이 시와 달리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4.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에머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되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슬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형클어진 인생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망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 유치환, <행복>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시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도피적 욕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감정의 대위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 ⑤ 사랑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5.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아롱아롱 꽃잎이 지는 어느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落花)>

- ① 유추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여러 가지 사물을 열거함으로써 독자의 비판 의식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독백과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6. 이 시와 어조가 비슷한 것은?

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웅숭음칠 그날이

- 심훈, <그날이 오면>

② 푸른 하늘을 제압(制壓)하는/ 노고지리가 자유(自由)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 김수영, <푸른 하늘을>

③ 순이,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 장만영, <달 · 포도 · 잎사귀>

④ 오 · 오 · 오 · 오 · 오 · 소리치면 달려가니,/ 오 · 오 · 오 · 오 · 오 · 연달아서 몰아온다.

- 정지용, <바다1>

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 박인환, <목마(木馬)와 숙녀(淑女)>

7. <보기>의 화자가 이 시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흥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① 사랑을 할 때는 아름답지만 이별을 하고 나니 아쉽기도 하고 슬프네요.
- ② 사랑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과 달리 떠날 때는 배가 물 위를 가듯 부드럽게 떠나가네요.
- ③ 이별 후에는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 ④ 이별하고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겠지만 그 상처가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 ⑤ 이별하고 나니 슬프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흥가분하네요.

# 고2 문학 미래엔

## 1(1)(1) 배를 매며 - 내신 암기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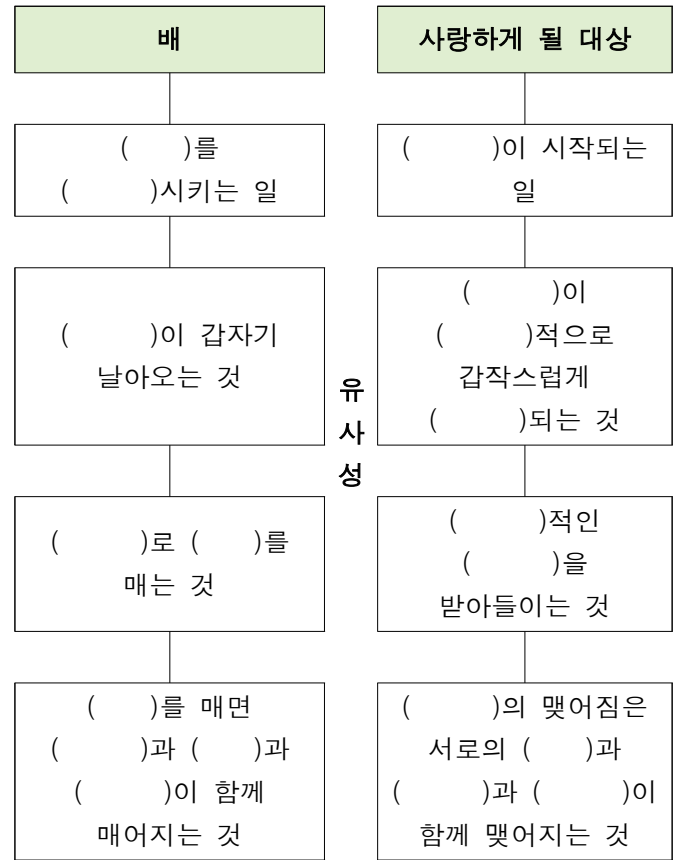
### 1. 작품 개관

갈래	( )시, ( )시
성격	( )적, ( )적, ( )적
제재	( )를 매는 일
주제	( )이 시작되는 과정과 ( )의 ( )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 )를 사용하여 ( )을 전개함. ② 소재에 ( )적 의미를 부여하여 ( )를 부각함. ③ ( )이라는 감정을 ( )를 매는 일 에 ( )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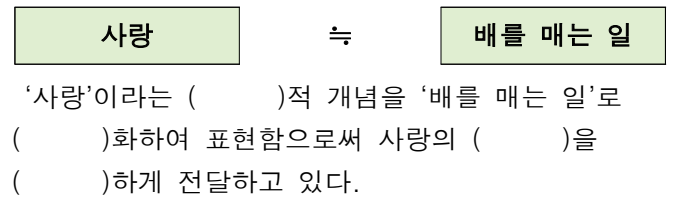
### 2. 작품의 구성

1연	우연히 ( )를 매어 본 ( )
2연	갑자기 ( )를 매듯이 ( )적으로 찾아 오는 ( )
3연	( )를 둘러싼 ( ) 환경에 대한 인식
4연	( )에 대한 ( )
5연	( )이며 온종일 떠 있는 ( )

### 3. 전개 방식



### 4. '사랑'의 형상화 방법



### 5. 시어의 의미

배	( )하게 될 ( )
뱃줄	( )의 대상과 맺는 ( )
부딪가	( )의 ( )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 ) 공간
구름, 빛, 시간	( )하는 대상을 둘러싼 ( ) (주변 환경)

6.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시구	정서 및 태도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 ) 마음으로 ( )을 맞이함.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 )한 사랑의 ( )을 깨달음.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을 떠 있다’	( )적 사랑의 ( )으로 (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낌).

7. 어조

( )적이고 ( )한 어조



배를 매는 ( )을 통해 깨달은 ( )의 의미를 ( )하게 드러냄.

8. 운율 형성 요소

-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맨다’, ‘달는다’
- ‘받는 것’, ‘되는 것’, ‘매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사랑은(이란)~-ㄴ(는) 것’



( )하거나 유사한 ( ), 유사한 ( ) 구조를 ( )적으로 사용하여 ( )을 형성함.

9. ○, ×퀴즈

① <배를 매며>에서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유추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 ×)

② <배를 매며>에서는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와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③ <배를 매며>에서 화자는 사색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

## 정답 및 해설

### 수능형 문제

1) <답> ②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는 화자의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됨을 의미한다.

2) <답> ④

이 시에서는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에서 ‘없이’가 반복되거나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가 3연과 4연에 반복되는 등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자작나무다’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3) <답> ③

이 시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배를 매는 일’로 구체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4) <답> ⑤

이 시에서는 사랑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했으며, <보기>에서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노래하고 있다.

5) <답> ①

이 시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①의 시도 꽃이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답> ③

③의 시는 가을밤 달빛이 비치는 들의 정취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요하고 담담한 어조로 노래한 시이다.

7) <답> 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를 통해 떠나보낸 사랑이 다시 화자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가 떠난 사랑에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⑤가 옳지 않다.

### 내신 암기용 문제

1) <답>

갈래 : 자유/ 서정

성격 : 서정/ 사색/ 비유

제재 : 배

주제 : 사랑/ 사랑/ 본질

특징

- 유추/ 시상

- 상징/ 주제

- 사랑/ 배/ 밧대어

2) <답>

1연 : 배/ 경험

2연 : 배/ 운명/ 사랑

3연 : 배/ 주변

4연 : 사랑/ 깨달음

5연 : 울렁/ 배

3) <답>

- 배 : 배/ 정박 → 밧줄 → 밧줄/ 배 → 배/ 구름/ 빛/ 시간

- 사랑하게 될 대상 : 사랑 → 사랑/ 운명/ 시작 → 운명/ 사랑 → 사랑/ 꿈/ 기쁨/ 세월

4) <답>

추상/ 구체/ 본질/ 생생

5) <답>

배 : 사랑/ 대상

밧줄 : 사랑/ 인연

부듯가 : 사랑/ 인연/ 찾아올

구름, 빛, 시간 : 사랑/ 세계

6) <답>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 반가운/ 사랑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 진정/ 본질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운명/ 아름다움/ 설렘

7) <답>

사색/ 담담 → 경험/ 사랑/ 차분

8) <답>

동일/ 어휘/ 통사/ 반복/ 리듬감

9) <답>

① ○

② ○

③ ○